

##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전지구화현상의 변증법적 해석 - 초역사주의와 혼합주의를 중심으로 -

이 은 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 요 약

21세기 들어 강력하게 전이되고 있는 시대정신(zeitgeist)은 '전지구화(globalization, 全地球化)'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는 복잡한 변화 과정과 힘이다. 전지구적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 확장된 인식은 공유된 공동체라는 감각을 창출할 수 있었다. 특히 전지구화 내에 존재하는 시공간 압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양상들은 현대 사회의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사회적 개인들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아 주었던 계급이나 성별, 성, 종족, 인종 그리고 민족성이라는 문화적 정체성들을 파편화한다. 전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서구사회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첫 번째로 민족 정체성의 정착된 지형들이 경합하면서 차이, 타자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압력에 대해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이것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서구 민족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낳게 되고, 서구의 문화적 중심성을 개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전지구화는 정체성을 다원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동일화의 위치들을 낳고, 정체성의 다양화와 탈고정적 비통합적 정체성들을 만들어낸다. 이는 패션트렌드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인한 기호와 스타일들의 단순한 차용에 의해 개인화된 룩으로 표현되며 다원화된 문화적 교환과 초국적(招國的) 기호들을 유희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타문화에 개방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호 개방적 스타일에 대한 부분적 요소들을 차용하는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지구적 이해관계에 직면하여 논쟁적인 쟁점들이 출현하면서 초역사주의는 사회적 교환의 체제를 표방하며 패션의 창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전지구적 정체성이라는 테마 아래 현대패션의 비전형적 콜라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미의식은 한 개의 문화적 동일성을 표현하는 대신 이질적인 문화경험의 표현과 개작되었거나 과도기적 문화 정체감들 간의 협상을 창의적으로 허용하는 패션트렌드의 역사성과 모던한 현대성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고유한 제3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각적 재현으로 형상화된다.

주제어: 전지구화, 초역사주의, 패션트렌드, 혼합주의

## I. 서론

패션의 변화는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 방향성을 지향하는 가치관, 전략, 태도, 사고방식, 신념, 동향과 같은 무형의 가치 및 관념 체제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현대사회의 시각문화 안에서 패션 트렌드는 사회문화상의 포괄적이며 지배적 양상을 의미하는 시대정신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21세기 들어 강력하게 전이되고 있는 시대정신(zeitgeist)은 ‘전지구화(globalization, 全地球化)’<sup>1)</sup>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는 복잡한 변화 과정과 힘이다. 1980년대 이후 지구촌(global village) 혹은 지구촌 이야기(global talk)와 같은 전지구화 담론은 사회 과학의 다양한 문헌들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정 민족과 그들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와 관습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급증하는 전지구화의 직접적 결과로서 나타난다. 게다가 사람들은 전지구화 과정에 있는 세계 체제 내에서 자기주장파 민주적 표현을 하기 위한 적절한 토론의 장으로서 그들의 지역성을 더욱 인식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었다. 심각한 보편화 경향에 처해 있는 지역 문화에서 유의미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요구는 전지구화 현상의 변증법적 역학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Giddens(1990)는 전지구화는 하나의 통일된 방향으로 행동하는 일반화된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반대되는 경향들 속에서 존재하는 과정으로서 설명하였다.<sup>2)</sup> Hamertz(1991)<sup>3)</sup>; Robertson(1990)<sup>4)</sup>; Roseanau(1990)<sup>5)</sup>; Perlmutter(1991)<sup>6)</sup>는 전지구화에 의한 보편화 대 특수화(universalization vs. particularization), 동질화 대 차이화(homogenization vs. differentiation), 통합 대 파편화(integration vs. fragmentation), 중앙 집중화 대 분권화(centralization vs. decentralization) 경향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전지구화의 힘에 대한 동일화, 즉 수용의 관점이란 그 담론의 용어 속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반동일화는 그 통제적인 구조 속에 머무르면서 도전하는 반항적 양식이며 반면 동일화와 일종의 공모 관계를 이루는 탈동일화 즉 반수용에 의한 초역사주의는 전지구화에 의해 제공되는 반대물들과의 구조를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논점들을 체계화하여 정체성은 재현 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다는 핵심적 관점과 재현 체계의 시각적 좌표로서 패션 트렌드는 현대 대중문화 사회 내에서 상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문화적 동질성의 성장과 전세계적인 포스트모던의 결과로 침식되는 민족 정체성, 전지구화에 저항하면서 강화되는 지역적 또는 특수한 정체성, 그리고 쇠퇴하며 동시에 새롭게 생성되는 혼성 정체성과 같은 수용과 반수용적 시각에서 전지구화의 변증법적 역학에 의한 21세기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2000년대 전지구화의 변증법적 논리 안에서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수용과 반수용의 시각에서 전지구화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의미구조와 가치에 이론적 정당성을 설정하는 것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전지구화현상에 나타난 수용의 시각에서 2000년대 패션트렌드를 고찰하고 반수용(反受容)의 시각으로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로서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Vogue(USA, British 등)와 연2회 발행되는 Fashion Trends, Textile View, View Point 등의 패션 트렌드 전문지를 근거로 하여 2001 S/S 시즌부터 2010 F/W 시즌까지의 20개 시즌으로 실증적 연구를 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전지구화의 정의와 개념

전지구화라는 용어는 복합적인 변화의 과정과 힘으로서 맥그루(McGrew)(1992)의 논의에 따르면, 전지구화의 개념 속에는 민족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공간의 결합 속에서 공동체와 조직을 통합하고 연결시키면서 세계를 실제와 경험 속에서 보다 상호 관련되도록 만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가리킨다.<sup>7)</sup> 전지구화는 잘 결합된 체계로서의 사회라는 고전적 사회학적 관념으로부터 이동하여 그러한 관념을 사회 생활이 시간과 공간을 교차하며 어떻게 질서를 갖는가에 집중하는 관점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거리와 시간 척도의 압축을 낳는 이러한 새로운 시공간적 특징은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민족 자립성으로의 경향과 전지구화의 경향 모두가 현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냉전 종식, 공산주의와 소련의 붕괴,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로의 이행, 민족적 제도와 관행의 전지구적 확산 등은 경제, 금융, 기술, 생태의 전세계적인 상호 의존의 심화와 더불어 낡은 세계 질서가 그 위협적인 양상들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고 단일한 운명 공동체라는, 세계 사회의 전개를 약속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비쳐졌다. 로즈노(James Rosenau)(1990)는 세계가 ‘탈국제 정치(post-international politics)의 시대’<sup>8)</sup>로 들어섰다고 선언한다. 이 탈국제 정치의 시대는 역사의 역학에 대한 현재의 전제들과 이해 방식이 개념의 감옥이 된 역사적 단절의 시대이다. 서구 모더니티의 기본 제도들, 즉 산업주의, 자본주의, 민족 국가는 20세기에 걸쳐 진정으로 전지구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sup>9)</sup> 전지구화의 초기 단계가 세계의 물리적 통일을 낳았다면, 보다 최근

단계는 세계를 단일한 전지구적 체계로 바꾸었다. 이 전지구적 체계에는 이전에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역사적 사회들과 문명들이 한데 아우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지구화가 전지구적인 문화 동일화 또는 전지구적인 정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인간의 상호 작용, 상호 연관성, 상호 인식 유형들이 세계를 단일한 사회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훨씬 더 복잡한 조건을 규정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지구화는 현대 세계 체계를 형성하는 민족 국가와 이것이 함축하는 사회를 초월하는 다차원적인 연계들 및 상호 연관성을 지시하고 있다. 전지구화는 세계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 의사 결정, 활동 등이 지구 저편 멀리 떨어진 개인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규정한다. 초국적인 네트워크, 사회 운동, 사회 관계는 학술적인 것에서 성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sup>10)</sup> 전지구적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 확장된 인식은 전자 매체들에 의해 강화되었는데, 이 전자 매체는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들을 시청자의 눈앞에 직접 전달하여 전지구적으로 공유된 공동체라는 감각을 창출할 수 있었다.

### 2. 전지구화의 영향과 정체성

전지구화 현상은 21세기 초 오늘날 강력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정체성이며 정체성은 재현 속에 함축되어 있다. 시각적 재현체계로서 패션 트렌드는 시대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반영으로서 상징적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전지구화 내에 존재하는 시공간 압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양상들은 현대 사회의 형태를 바꾸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사회적 개인들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시켜 주었던 계급이나 성별, 성, 종족, 인종 그리고 민족성이라는 문화적 정체성들을 파편화시킨다.

전지구화 과정에 담긴 측면들이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중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민족 정체성은 문화적 동질성의 성장과 전세계적인 포스트모던의 결과로 쇠퇴하고 있으나 새로운 혼성 정체성들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민족 정체성 및 기타 지역적 또는 특수한 정체성들은 전지구화에 저항하면서 강화되고 있다.

전지구화에 의한 수용적 정체성은 첫 번째 관점으로서 전지구화가 단순히 범세계적인 것의 승리도 아니고, 그 민족주의적, 지역주의의 존속도 아닌 제3의 다른 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모든 곳에서 문화적 정체성들은 고정되지 않고, 상이한 문화적 전통들에 기대며 전 세계의 공통요소가 되는 복합적인 교차와 혼합의 산물로서 표현된다. 변환의 정체성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합적이지 않으며 맞물려 있는 몇 개의 역사와 문화들의 산물로서 동시에 복수의 출처들에 기원한다. 두 가지 이상의 정체성 속에서 혼재하고 두 문화 속에서 협상하는 혼성 문화들은 후기 모더니티가 도래하는 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하고 새로운 정체성 유형이다. 이는 패션트렌드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인한 기호와 스타일들의 단순한 차용에 의해 개인화된 룩으로 표현되며 다원화된 문화적 교

환과 초국적(招國的) 기호들을 유희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타문화에 개방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호 개방적 스타일에 대한 부분적 요소들을 차용하는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전지구화 현상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인 반수용적 정체성(반동일시)은 전지구화에 의한 혼성과 다양성에 맞서 순수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응집성, 폐쇄성 그리고 전통을 재건하려는 강력한 시도들로서 민족주의의 부활과 근본주의의 부상을 들 수 있다. 근본주의는 가속화하는 전지구화의 역학에 의한 하위 집단주의(sub-groupism)의 번성, 그리고 시민 사회의 분절, 소수 민족 의식의 발흥과 같은 새로운 소속 의식의 부상 등 파벌적 정체성들을 추구함으로써 일국적 정치 공동체의 경계를 규정해 왔던 전통적인 통합화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급진적 표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전지구화 현상에 따른 수용적 정체성을 근거로 고찰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반수용적 시각에서 전지구화현상의 전통주의와 근본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1) 정체성의 확대와 다원화: 초역사주의

초역사주의는 기술, 구체적으로 탈산업 질서로의 이행에 따른 전지구화의 논리에 기반하여 오늘

<표 1> 전지구화의 영향에 의한 수용과 반수용의 정체성

정체성 형성 유형	수용(acceptance)		반수용(defence)	
	초역사주의	특수주의+보편주의 : 혼합주의	지역성과 종족성 회귀 : 서구적 전통주의	서구적 비서구적 근본주의
원인	지배문화의 배제로 새로운 정체성의 공동축 형성	전지구적 소비주의에 의한 정체성의 공유	이국적 문화의 침투에 대한 저항과 방어 기제	경제적 낙후성과 민주적 전통의 빈약함으로 인한 현대화의 반작용
결과	정체성들의 다양화와 유동적, 비통합적, 초역사적인 정체성 형성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적 동질화 혼성문화와 이중적인 의식	역사성에 기반한 정형성과 고전의 재발견	종교적 급진주의, 배타적 파벌성을 중심으로 급진적 주변문화 형성
사례	영국성의 개조 '검은black'이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	동화되고 표준화된 스타일과 방식 자국문화와의 혼합	수공예적 감성의 부활, 전통적 가치의 재인식	민족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서구사회내의 대항문화

날 전지구적 체계의 발전 형태에 대해서 기존의 역사의식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결론에 다다른 주장이다. 로즈노는 지구촌 전체에 걸쳐 탈산업주의의 완전한 힘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전지구적 체계의 구조적 분화 현상을 규명하고 있다. 단일한 전지구화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와 국내 권력이 여전히 결정적인 변수로 남아 있는 국가들의 사회와, 각자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다원화된 조직, 집단, 개인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단일한 민족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초국적인 관계, 구조, 상호 작용을 만들어 낸다. 이 세계는 일종의 극다원주의적인(hyper-pluralist) 초국적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로즈노는 이 세계를 다중심 세계(multi-centric world)라 부른다.<sup>11)</sup>

변환의 정체성은 자연적인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근원으로부터 흩어진 정체성의 형태들을 그리고 있다. 원형에 대해 연결성을 맺고 있지만 과거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배제한 채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거나 타협한다. 그들은 자신을 형성시킨 특수한 문화, 전통, 언어, 역사의 자취를 지니고 있지만 기존의 의미로부터 비통합성을 지향한다. 전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서구사회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첫 번째로 민족 정체성의 정착된 지형들이 경합하면서 차이, 타자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압력에 대해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이것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서구 민족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낳게 되고, 서구의 문화적 중심성을 개방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효과는, 정체성의 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체성의 위치가 어느 정도 양극화되면서 그 위치가 풍부해진다는 점이다. 즉, 전지구화가 지역적 정체성들의 강화 또는 새로운 정체성들의 생산을 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며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 함께 교차적으로 접합되는 일례이다. 따라서 전지구화는 정체성을 다원화시키

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능성과 새로운 동일화의 위치들을 낳고, 보다 다양한 정체성으로 만든다. 또한 탈고정화를 유도하고 비통합적이며 초역사적인 정체성들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이들은 로빈스가 바바를 따라 변환(translation)이라고 부른 바를 향하고 있다.

이는 패션트렌드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인한 기호와 스타일들의 단순한 차용에 의해 개인화된 룩으로 표현되며 다원화된 문화적 교환과 초국적(招國的) 기호들을 유희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타문화에 개방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호 개방적 스타일에 대한 부분적 요소들을 차용하는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의 접합과 절충: 혼합주의

융합 혹은 혼합주의는 전지구적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사회의 하부 구조가 출현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진보적인 주장이다. 세계 사회라는 시각은 인류를 개별 민족 국가 단위로 여기기보다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운명 공동체로 간주한다. Modelski(1972)의 진술에 따르면<sup>12)</sup>, 오늘날 전지구적 상호 작용과 상호 인식의 광범위한 확산은 환경주의, 인권, 생존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심화와 관련된다. 국경을 가로질러 공동체, 가구, 개인들을 연결시키는 복잡한 초국적 유대는 한정된 일국 사회 내에 갇혀 있는 인류의 이미지를 약화시킨다. 대신 그것은 인류를 다원적이고 중첩적이며, 확산될 수 있는 공동체 또는 사회적 상호 작용 체계의 수평적 조직으로 수용한다. 이 세계 사회의 이미지는 국경이 시야에서 사라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전지구화는 서구화와 등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비서구적 가치와 사회적 관행이 널리 용인되고 서구 사회의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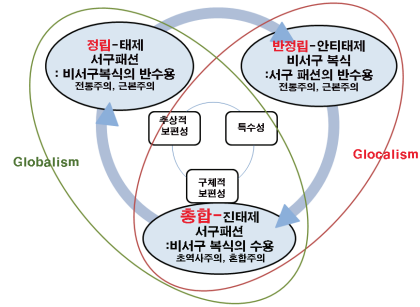
또한 문화의 흐름과 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전

파되는 전지구적 소비주의는 시공간상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동일한 상품의 소비자와 고객으로서, 동일한 메시지와 이미지들에 대한 청중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할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스타일, 장소와 이미지들의 전세계적 시장화와 국제 여행,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매체 이미지들 및 통신 체계들에 의해 정체성들은 더욱 특정 시간이나 장소, 역사 및 전통들로부터 이탈하고 자유 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정체성을 규정해 온 차이와 문화적 특이성들은 국제적인 혼합어 또는 전지구적 기호로 환원될 수 있게 되었다. 정체성의 변형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어느 정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민족 정체성은 특정한 장소나 사건, 상징, 역사들과 결부되어 재현되며 특수주의적인 귀속 형태나 소속 형태로 일컬어지는 것을 재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주의적인 동일화는 보다 보편주의적인 동일화들과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 3.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전지구화 현상의 변증법적 해석을 위한 연구의 모형

전체의 계기로서의 대립물의 종합이라는 변증법은 모순되는 명제들의 통일로서 진리를 파악하는 원환적인 구조의 해석이다. 새로운 현상의 발전은 ‘우연적인’ 특징들이 ‘필연적인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는 것으로 변화된다. 새로운 특징들은 보통 단번에 그리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개별적이고 우연적이며 아직 본질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존재로 진행된다. 변증법의 근본법칙은 양적 변화가 질적 차이로 전화되는 것이며 사물과 현상의 발전 및 근본적인 변화는 양적인 특징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데 그것은 양적 변화에 의해 누적되지만 낡은 질의 내부에

<표 2> 패션에 나타난 전지구화 현상에 대한 변증법적 종합구조의 모형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것이 어떤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양에서 질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양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질적 변화에 들어서게 되는 한도에 이르게 되며, 점진적인 양적 변화로부터 비약적인 질적 변화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단지 ‘가능한 것’에 지나지 않던 것으로부터 ‘현실적인 상태’를 이루는 형태가 된다. 이는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반면에, 또한 ‘현실적인 것’이 ‘가능한 것’으로 위축됨은 낡은 것이 여전히 중요한 세력을 차지하고, 현존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표현한다.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의 승리 이후에 더 이상 현실성을 갖지 못하지만 그것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만은 유지한다.

현재 서구보편성은 우위에 있고 당분간 여전히 자리를 지킬 것이지만 문화 정체성은 모든 곳에서 전지구화와 관련된 시공간 압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상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하비가 말한 전지구화의 불연속적 즉, 시공간 압축의 개별 단계들에 의해 단절과 확장 및 심화를 나타낸다. 전지구화 개념은 현대 세계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들 및 사회들 간의 수많은 연계 및 상호 연관성을 낳는 보편적 과정을 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지구화는 현대 세계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 및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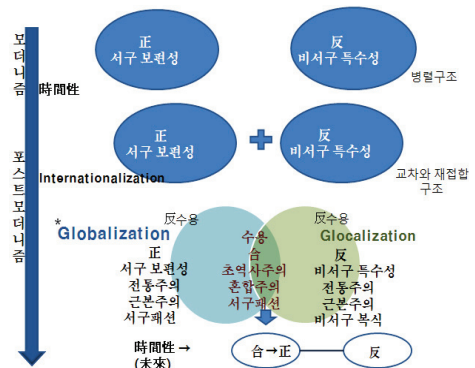
회들 간의 상호 작용,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의 수준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의 ‘확장’에 뒤이어 ‘심화’가 나타난다. 변증법적 운동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인 특수성에 의해 기존 보편성의 잔재가 현실적으로 소멸해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현상을 생성시킨 양적 발전은 그에 걸맞는 현실적 가치구조를 형성시키고, 가치구조를 새롭게 창출해가면서 인간의 활동성을 통하여 질적인 것으로 변화된다. 이 같은 전지구화 현상을 설명하는 연속적 역사체제 모델은 세계가 점차 단일한 총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인간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한편으로 과학과 기술의 영향에 힘입어 점차 전지구적 세계가 된다. 현재 우리는 아직 그 단계 도달하지 못했으나 전지구화 구조에 의해 미래의 전망은 이런 방향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전지구화 현상은 서구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진보 시대로부터 복수의 다양한 문명들이 교류하고 경쟁하고 공존하는 시대로 진입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그리고 세계 사회를 서구 문명에 귀속시키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비서구 문화의 유입을 통하여 휴머니티와 재생적 정신성을 복원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세계에 대한 저항은 한편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 국수주의 및 회고주의의 형태를 나타내거나, 또 한편으로 집단적 구호와 함성으로 획일화에 대항해 투쟁하면서 부흥하는 소위 대항적 하부문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점차 동화되어가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동시에 그 세계 안에서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출하려는 변증법적 움직임 즉, 하나의 세계를 향한 추세 대 국가의 독자성 추세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민족국가 내에서 동질한 민족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서로 구분되는 민족집단 혹은 소수 정체성이 생겨나는 하나의 국가를 향한 추세 대 국가 내 민족집단의 독자성 추세와 같은 변증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전지구화 현상의 변증법적 해석을 위한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전제될 수 있다. 곧 변증법적 전개의 제1단계: 태제(these)·명제(命題)로서 서구 보편성인 정과 제2단계: 안티태제(antithese), 정립이 내적 모순으로 낳은 대립명제(對立命題)로서 비서구적 특수성이 각각 병렬 구조로서 존재한 모더니즘 시기로부터 전지구화 현상의 진화에 따른 양자간의 통합이 전개되면서 진테제(synthese)로서 총합(總合) 구조의 변증법적 전개의 제3단계가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적 진전과 함께 점차적으로 이행, 통합되는 교차와 재접합의 구조로서 그 양적 전환과 질적 전환의 차이는 시간과 지역 그리고 각 영역별로 차별화되는 운동성과 발전적 과정이라는 개념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모순과 대립물의 전화(轉化)와 총합에 대한 변증법적 연구의 방법론을 전지구화의 본질적 불균등성의 역학에 적용시킨 수용적 시각에서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상호 반대되는 경향들 속에서 존재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전지구화 현상의 함의를 시대정신의 시각적

<표 3> 시간적 경과에 따른 서구 패션·비서구 복식에 나타난 전지구화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



구체화로서의 패션 트렌드에 대입하여 그 명시적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반수용적 관점의 해석을 고찰할 것이다.

### III.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전지구화 현상에 대한 수용적 관점의 초역사주의와 혼합주의

#### 1. 초역사주의: 차용성과 유희적 교환성

패션의 초역사성은 전지구화에 대한 수용적 관점을 지향하며 동시에 혼합주의적 에스닉 웨어에 비해 더욱 순화되고 온건한 혹은 세련된 기교의 적용으로서, 전자보다 한층 광범위한 영역과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이는 내면적 상징이나 그 문화적 함축성을 배제한 채, 다양한 지역성에 기인한 기호적 이미지와 스타일들의 단순한 차용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들의 조합을 형성한다. 즉,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서로 독립된 이국적 디자인 요소들을 참조하며 결과적으로 기본적 아이템들에 흥미로운 변화와 개성을 부여하고 긴장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래 문화의 정통성을 채택하지 않고 단지 자유로운 문화적 혼합과 이국적 기호들을 유희적으로 병치, 조합하여 유희와 의외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단순한 유희적 교환의 단계를 지향하며 특수한 실제적 암시성이나 함의 혹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는 태도로서 전지구화에 대한 관용과 개방성을 나타낸다. 반면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깊이 있는 탐구심을 부정한 채 무의식적으로 스타일에 대한 부분적 요소들을 차용하는 선에 머무른다. 전지구적 이해관계에 직면하여 논쟁적인 쟁점들이 출현하면서 초역사주의는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를 상징하는 사회적 교환의 체제를 표방하며 따라서 패션 선택은 의식적, 무

의식적인 사회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패션의 창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전지구적 정체성이라는 테마 아래 현대패션의 비전형적 콜라주(collage)를 구성하고 있다.

#### 1) 변환과 재접합

전지구화에 의한 패션의 초역사주의의 미학적 가치의 근거는 변환의 미의식에 있다. 기존의 모더니즘 혹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에 근거한 패션트렌드의 기본형은 독창성에 가치를 두는 데 비해 재접합에 의한 초역사성은 다원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르고 섞기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적이며 누구의 변형판과 해석이나 개작도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같은 미의식은 한 개의 문화적 동일성을 표현하는 대신 이질적인 문화경험의 표현과 개작되었거나 과도기적 문화 정체감들 간의 협상을 창의적으로 허용한다. 패션의 초역사주의는 전지구화의 심화 단계와 함께 시작된 21세기 초의 탈근대 합리주의화, 신 노매드 문화 경향과 함께 독창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보편성 대 특수성, 동질성 대 차별성, 통합성 대 파편성, 병렬성 대 융합성의 전지구화의 역학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두드러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패션 트렌드에서 역사성과 모던한 현대성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고유한 제3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각적 재현으로 형상화된다.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방의 아랍문화권의 민속의상에서 유래한 주아브 팬츠(zouave pants)는 다소 독특한 팬츠 실루엣으로서 품이 넉넉하고 다리 사이로 여유있는 안쪽슬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군에 속한 알제리 병사들의 아라비아 풍 제복 하의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었으며 하렘팬츠(harem pants)와 함께 풍성한 착용감





<그림 1> 랄프 로렌 발렌시아가 2009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9, p.74)    <그림 2> 마크 제이콥스 2007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3> 발렌시아가 2009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9, p.57)    <그림 4> 알렉산더 왕 2009 S/S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8, p.48)    <그림 5> 입생 로랑 2006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으로 보다 완화된 도시적 스타일을 형성하며 서구적 의복의 전통성에 기인한 직선적 재단법과 혼합된 면모를 보여준다<그림 1>. 매우 넓고 풍성한 볼륨감과 발목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하렘 팬츠는 본래 인도에서 기원하였다. 무릎 아래로는 밀착되며 그 위로는 여유가 많고 자루모양의 디자인으로 스커트와 스키니 팬츠의 절충적인 형태이며 허리와 발목부분은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2007 S/S 컬렉션에서는 유연한 소재감과 자연스런 드레이퍼리를 형성하는 디자인으로서 보편적 일상성을 넘어서 패션의 의외성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적용되었다. 또한 컬러의 사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컬렉션을 완화된 뉴트럴 톤으로 한정하여 디테일의 이국적 특성을 중화시키고 있다 <그림 2>. 특히 허리선 아래로 길게 연장된 상의들과 볼륨있는 바지의 레이어링과 앞여밈 장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카프탄형의 앞여밈은 아시아 내륙의 일종의 가운데 의복이지만 많이 터져 좌우의 길을 여미는 형식의 긴소매가 달리고, 옷길이가 긴 전신의(全身衣)이다. 서아시아, 터키 등 카프탄 계통의 복식은 길이가 길고 앞에서 여미는 의복의 총칭으로 어원은 터키, 페르시아어의 ‘gaftan’이다. 이 형식은 중동 제국을 비롯해서 회교문화권에 분포하며 긴 소매

에 거의 직선재단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앞을 여미서 띠를 매어 착용한다. 동아시아와 아랍문화권의 전통복식 요소를 참조한 요소로서 풍성한 주아브 팬츠 그리고 조절가능한 앞여밈 등 이국적 기호들을 병치하여 패션의 초역사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전지구적 외부 영향력 속에서 동화와 재접합 현상은 또한 직선적인 재단의 팬츠 수트와 같은 아이템에 대해 그 미적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기도 한다. <그림 3>은 인도의 사리(Sari)의 복식요소에 의한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풍부한 드레이퍼리 감각의 이브닝 텍시도는 앞여밈 디테일과 자연스런 주름 효과에 의한 리듬감과 함께 유희적 개방성을 보여준다.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쿠튀르 유산에 기인한 유럽 패션의 구조적 정통성에 대한 인도문화의 동양적 요소의 수용로 표현된 ‘사리룩 팬츠(sari-look pants)’는 남성성 대 여성성의 절충 그리고 실용주의 대 이상미를 지향하는 실험주의 사이의 균형감각을 창조하고 있다. <그림 4>은 이 같은 균형과 절충이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스모킹 수트(le smoking)’에 대한 이국적인 요소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모던하게 해석되었다. 튜닉과 팬츠를 레이어링하는 기법은 전지구화를 수용한 패션의 초역사주의적 연대의 대표적인 상징기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입생 로



<그림 6> 마미  
2006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7> 도나 카렌  
2009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9, p.52)



<그림 8> 루이 비통  
2009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9> 구치  
2002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랑 2006 F/W 컬렉션에서 소개된 벨트로 신체선을 살리는 것은 튜닉의 서구화된 변형이며, 이는 팬츠 슈트에 대한 간소화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그림 5>. 튜닉을 이용한 레이어링 기법은 인도 문화권의 민속 복식인 ‘쿠르타(Kurta)’에서 기원하고 있으며<sup>13)</sup>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바지와 함께 착용하는 무릎 전후 길이의 품이 넉넉한 칼라가 없는 셔츠형(collarless shirt) 복식이다. 현대화된 쿠르타는 만다린 칼라가 부착되어 있으며 소매는 서구형과 달리 커프스가 없는 직선형으로 재단되어 있다. 또한 ‘샤르와 카미즈(Shalwar Kameez)’는 남부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속복식 가운데 하나로서 서양복식의 셔츠와 팬츠 개념에 해당하는 유니섹스 의복이다. ‘카미즈’는 허벅지 길이의 길고 평면적인 튜닉 셔츠형태로서 양 측면슬기는 허리선까지 개방되어 있어 활동적이며 목선과 소매, 밑부분은 자수나 레이스로 장식되는 예가 많다. 특히 영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남부아시아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자들의 기존 일상복으로부터 주류에 편입되어 하이패션에 수용되었다.<sup>14)</sup> 마미(Mami) 2006 F/W 컬렉션에서는 어깨선으로부터 일직선으로 떨어진 튜닉과 좁은 스커트의 레이어링 그리고 허리선이 들어간 구조적 튜닉의 단순함이 돋보이는 심플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그림 6>. 인도 민속복식에서 유래한 튜닉(tunic) 혹은 프

록(frock)과 팬츠의 레이어드 착장은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속물적 스노비즘(snobism)과 물질주의에 대항하여 동양복식 문화를 수용하는 경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전통 종이접기 기법인 오리가미(origami)는 많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입체적 조형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영감을 주고 있다. 오리가미는 다층으로 구성된 일종의 레이어드 플리즈로서 흐르는 듯 유려한 라인을 형성하는 오리가미 기법의 커팅 구성법은 각을 형성함으로써 고유한 3차원적 형태미를 살리고 있다. 새틴이나 오간자 혹은 매끈한 코튼, 인조 실크와 같은 단단하고 뽀뽀한 직물감촉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실루엣을 형성하는 탈구축적인 면은 의복구성 기법에 대한 현대적 창의성을 부여한다. 특히 오리가미 기법의 기하학적 구조와 쿠티르에서 파생된 의복 소재의 조작방법의 조합은 실루엣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7>.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오비(Obi belt)는 허리선을 강조하는 실루엣의 모던한 표현에 있어서 접합되고 있다. 루이 비통(louis vitton)의 2009 S/S 컬렉션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패션의 허영과 장식적 속성을 되찾으려는 저항적 정신을 담은 강렬한 명암의 패션을 선보였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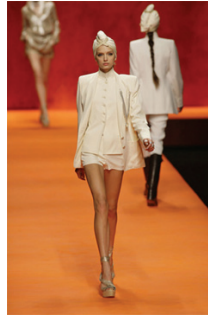
<그림 9>는 새틴 소재의 스키니 팬츠와 어깨선



<그림 10> 로베르토 카발리  
2010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11> 임 쉐 로랑  
2005 S/S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5, p.32)



<그림 12> 에르메스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13> 엠포리오 알마니  
2005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에서 흘러내리는 상의 등 90년대 중반 대담하고 강렬한 표현성을 재현하는 구찌의 ‘록 슈크(rock-chic)’의 테마 컬렉션이 제안되었다.

한편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 유랑민족인 집시를 뜻하는 ‘보호 슈크(Boho chic)’는 서구 전통적 가치에 저항하는 이탈의 상징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자유로운 방랑자의 정신을 표출한다. 화려하고 원색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실루엣으로 이루어진 부풀린 소매, 꽃무늬가 두드러지는 발목길이의 프릴 개더스커트, 페전트 블라우스(peasant blouse), 카프탄(kaftan), 튜닉, 크로셰(crochet) 기법, 맥시 드레스(maxi dress) 등이 대표적이며 다채로운 컬러와 패턴, 아이템, 소재간의 레이어링 기법을 통해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고급성과 실용성, 도시적인 이미지와 자연적인 이미지 등의 상반된 요소들의 융합과 창조성이 두드러진다. <그림 10>은 호화롭고 글래머러스하게 해석된 ‘boho’스타일로서 하렘팬츠와 브로케이드 밀레터리 코트(brocade military coat), 더블렛(doublet)이 카발리(Cavalli)의 디자인 유산인 피렌체 르네상스 장인적 감각으로 어우러져 글래머 이미지와 캐주얼 시크의 믹스가 나타난다. 또한 빈티지 감각의 벨벳, 가죽, 자수장식 그리고 빛바랜 애니멀 프린트가 가벼운 레이어링 룩과 함께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전지구화의 수용에 의한 패션의 초역사주의는 직접적이고 공공

연한 민속풍에 대한 정제와 정화를 지향하는데, 이처럼 개정, 변형된 포클로어 스타일에서 페전트 블라우스(peasant blouse)는 우아함과 모던함에 부합되는 도회적 룩을 연출한다.<sup>15)</sup> 풍성한 볼륨감으로 숄더패드보다 완화되고 부드러운 볼륨감의 어깨선을 연출하고 있으며 현대적, 합리적인 민속성의 재구성으로서 도시적 스타일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그림 11>.

## 2) 병치와 교차성

민족복식의 요소들은 전지구화된 사회의 패션트렌드에서 주요한 영감으로 작용하는데 이들은 공식적 서구패션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있었기에 애매모호성, 병치, 아이러니를 위한 교묘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패션은 표면적으로 늘 민족 복식을 한정된 존재로 취급해왔으나 전지구화 현상에 의해 그것은 유연하고 개방된 것으로 변화되며 계승받은 전통일 뿐 아니라 오히려 동적인 구조물이고 연속적인 관행인 동시에 현재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구현된다.

네루제킷은 만다린 칼라가 부착된 영당이 까지 내려오는 남녀공용의 긴 테일러드 코트로서 ‘애쉬칸(Achkan)’이라고 불리는 남부 아시아지역의 민속의 상에서 유래하였다. 인도의 총리였던 네루(Nehru)가 입었던 의복으로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



<그림 14> 입 생 로랑  
2004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4)



<그림 15> 샤넬  
2010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16> 구치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17> 지방시  
2007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대 초반 사이에 서구패션에 소개되어 유행하였으며 2000년대 패션에서 쿠티르 감각을 살려 감각적인 슈트로 표현하였다<그림 12>. 엠포리오 알마니 (Emporio Armani)의 컬렉션에서는 역시 인도를 주제로 한 컬렉션으로서 에스닉 감성이 감각적 이탈리아 스타일을 통해 여과되었다. 화이트, 아이보리, 그레이 등 바랜 듯한 (washed-out) 컬러로 구성된 표면 주름 효과의 가볍고 반짝이는 소재를 이용하여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데, 곡선적이고 부드러운 실루엣과 함께 어우러져 타이트한 재킷에 현대적인 개성을 부여한다. 이들은 패션의 트렌디한 다양한 요소들의 혼합성에 잘 부합되는데 특히 인도풍 폴로 컨셉에서는 허벅지 부분이 풍성한 jodhpur와 하렘팬츠와 행커치프 스커트(handkerchie f-point skirt)가 레이어링되었다<그림 13>. 영국의 인도 통치 시대(the Raj)의 복식을 표현하는 보석장식의 시폰 무희복과 네루 재킷, 굽이 없는 샌들과 터번 등은 샌드(sand)와 베이지( beige)톤 컬러를 중심으로 노매딕(nomadic), 원시적 테마를 느끼기에 충분하고 실크 레깅스와 여유있는 시폰 드레스 그리고 트렌치 코트의 레이어링이 주를 이룬다. 서구적 요소로서 엠파이어 라인드레스, 에드워드시대 하이넥 블라우스(Edwardian high-neck blouse)가 표현되고 있다.

중국 고유복식인 ‘Mao Suit’(Zhongshan suit 中山

裝)는 현대 중국 공산주의 체제에서 착용하는 남성용 정장 튜닉 슈트로서 무산계급의 일치와 단결을 상징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서구의 비즈니스 슈트에 상응하는 의복이며 중국 남성 전통복식인 청조(淸朝)의 ‘Changshan(長衫)’과 서구복식을 혼합한 개념이다. 입생 로랑 컬렉션에서는 1977년의 ‘Chinese collection’을 재현하였다. 위로 솟은 강한 어깨선의 파고다 숄더(pagoda shoulder)는 이전의 각진 선에 비해 곡선적으로 변형되어 펜슬스커트와 함께 뚜렷한 컬러 대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그림 14>, <그림 15>. 또한 <그림 16>은 인도네시아 기하학적인 바틱 프린트(batik-style print) 기법에서 영향을 받은 기법을 블랙 저지 드레스와 함께 가슴부분의 장식 그리고 컷아웃 기법과 함께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페티시(fetish)한 이미지와 교차시켰다. <그림 17>은 땅과 흙, 토속적인 색감의 레드, 브라운 골드, 그린 컬러조합의 아프리카 풍 프린트를 재구성한 튜닉드레스로서 원시적인 부족성의 현대적 병치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18>은 스포티한 감각의 자유로움을 길고 가는 ‘long & narrow’ 실루엣으로 표현한 작품으로서 브라운과 그린 등의 컬러대비로 ‘래스터페리언(Rastafarian)’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레게와 아프리카 이미지를 전환시켜 초역사성을 드러낸다.



<그림 18> 프라다 2005 S/S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5, p.34)

## 2. 혼합주의: 지역성과 문화접변성

외부의 이국적 영향력을 수용한 민속적 이미지는 이상적으로 무형적, 정신적 행복의 잃어버린 유토피아와 가치를 추구하며 문명과 떨어진 미개 지역의 문화를 통해 투영된다. 이들의 비서구적인 문화의 독창성에 기인한 에스닉 웨어는 내재적으로 현대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현대 산업 사회의 환경은 비인간적, 무자비하고 산업생산물들은 환경문제를 낳고 자연을 파괴한다. 이에 비해 미개발 지역의 야생과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며 조화로운 삶의 원천으로서 잃어버린 삶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 민족의 문화의 생활양식을 차용하여 자연의 생명력과 생태학적이며 환경친화적 지혜를 우리 삶속에서 배우고 주입시킨다. 에스닉 웨어는 개발도상국가의 주민들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를 추구하며 물질적 취약과 빈곤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삶에 가치를 두는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는 독창성이 강한 패션트렌드로서 각 민족들의 민속복을 활용하고자 하며 다문화적인 조합을 강조하여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 개방성을 보여준다.

소수진영에 의한 개방성과 급진적 태도는 사회적 통합과 모든 문화권의 스타일들에 대해 관용과 고유한 의미창출을 지지하는 가운데 현대적으

로 재창조된다. 이는 고유한 생의 철학을 상징하는 이국적 스타일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상을 옹호하는 태도이며 지대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문명에 대한 문화적, 정신적 관계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접변을 지향하여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의 방편으로 장려된다. 인본주의적 수용의 일환으로서 침략적 성향을 배제한 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와 적절한 주체적 표현을 유도하면서 다문화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뚜렷이 각인되는 이미지를 이룬다.

### 1) 타자성과 지역성의 수용: 아시아 에스닉룩

유럽과 동아시아간의 교역을 통해 중국풍이나 유사 중국 디자인 모티브가 유럽의 공예품의 예술 양식에 반영되었던 시누아즈리(chinoiserie)는 일찍이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말 이후 세계주의의 수용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양상의 지역성 혼합 현상이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이국적 이미지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패션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 복식은 북방계의 튜닉형, 가프틴형이 혼합된 형태로서 목에서 겨드랑이까지 사선으로 혹은 앞 중앙에서 서로 맞닿는 트임을 여미는 매듭 단추, 옆솔기의 트임, 차이니즈 칼라 혹은 만다린 칼라로 지칭되는 스탠드업 칼라가 특징적이다.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화려한 색상의 고급스런 산통실 크이며, 다채로운 자수 장식과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주로 사용되는 문양은 용,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과 나비, 물고기, 꽃, 대나무 등의 자연물과 한자 등이다. 프라다(Prada) 2008 S/S 컬렉션에서 부드러운 색감을 사용한 플로럴 프린트의 여성적 이미지를 실크소재의 스탠드업 컬러로 이루어진 중국 전통의상인 ‘청삼 드레스(cheongsam dress)’로 재조명하여 중국풍 모티브를 사용한 로맨틱 레이디라이크 룩(ladylike look)을 조명하였다.<그림 19>



<그림 19> 프라다  
2008 S/S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8)



<그림 20> 존 갈리아노  
2002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02)



<그림 21> 켄조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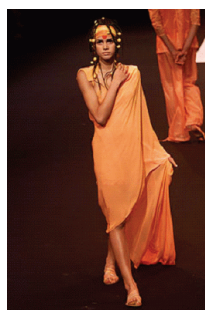
<그림 22> 존 갈리아노  
2004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일본풍의 선 사상(zen)은 순수, 자연, 정신주의 등의 개념을 상징하면서 내적인 성숙과 미에 대한 내적 성찰을 표방하는 문화적 트렌드와 함께 서구 세계에 널리 수용되었다. 이는 빠르게 변해가는 첨단 문명사회에 대한 위기의식과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 속에서 상실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철학적 태도이자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순수하고 여유로운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존 갈리아노(John Galiano)는 민속적 사이키델릭 세계여행자(psychedelic globetrotter)의 테마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꼽히는데 <그림 20>은 일본 전통 가무극인 가부끼의 연극적인 스펙터클 이미지와 패션의 과장된 표현주의적 성향으로 아방가르드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와 아랍 문화권은 특히 복식의 역사적 측면에서 서구적 패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 영감의 근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켄조(Kenzo) 2010 S/S 컬렉션<그림 21>에서는 자유로운 감성과 로맨틱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사하라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노매드 혹은 사막의 탐험가를 패션의 시각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서구인의 시각으로 조명한 아라비아 패션여행은 두꺼운 벨트장식의 넉넉하고 큰 셔츠와 린넨 셔츠드레스, 노끈으로 연출된 동양적 벨트장식, 밀리터리 감각의 반바지,

앞부분을 끈으로 여미는 혈령한 팬츠와 마드라스 트렌치(madras trench)의 조화가 전지구적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존 갈리아노 2004 F/W 컬렉션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예멘(Yemen)의 민속의 상을 모티브로 한 부족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매우 감성적이고 현란한 민족지학(民族誌學)적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데 선명한 원색의 플로럴 패턴과 패치워크로 이루어진 잡다한 감각 과부하(感覺過負荷) 시각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림 22>.

또한 인도의 전통의상인 'Sari'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빈번히 영감을 주는 민속복으로 나타나는데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불교의 수도자 복식에서 기원한 매우 길게 연장된 스커트와 드레이퍼리가 강조된 상의, 흐르는 듯



<그림 23> 장 폴 고티에  
2002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24> 에르메스  
2008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한 유연한 소재감, 그리고 둘러서 걸쳐 입는 랩 스타일(wrap style)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교 승려들에게 오렌지 컬러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함축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지구적 공동체를 향한 수용적, 관용적인 메시지로써 형상화되었다<그림 23>, <그림 24>.

## 2) 다국적 유대와 비구조화-다국적 이미지의 에스닉룩

2010 F/W 시즌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던 시기로서 특히 미니멀리즘이 전반적인 지배적 트렌드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작용은 타문화의 수용에 근거한 풍성한 드레이퍼리감을 표현하는 레이어드룩은 '노마드 슈크(nomad chic)'의 테마와 어울려 초국적 문화의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땅과 미개척지를 향해 이주하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모험적인 부족성을 드러내는 테마와 고산 지대의 민속의상과 동유럽풍을 혼합한 다국적 이미지로서 장식성 특징과 표면감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헝가리 전통 자수기법(crewelwork)과 러시아풍 실크 브로케이드(samarkand silk brocade)의 요소로 이루어진 포피 코트, 툴 드레스(tulle dress) 등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5>, <그림 26>.

<그림 27>은 우즈베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이집트, 몽골 등의 광대한 참조성을 바탕으로 한 혼합

주의를 보여준다. 창조적 가능성을 통한 전지구화 세계의 통찰력을 공유하며 레이어드 룩으로 연출된 이동과 축적의 관계를 지시하고 있다. 울 드레스와 동양적 실크직물의 바지 그리고 트위드 재킷의 조합은 영리한 책략가이자 우아한 세계여행자로서 진정한 노마드, 개방적인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수집가적 이미지가 디자이너의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패션 언어로서 치환되었다. 이는 또 다른 참조성인 로맨틱한 꽃무늬, 퍼프 숄더(puffed shoulder), 코튼 블라우스, 리플스커트(ruffle skirt) 등의 자연주의적 테마와 함께 구체화되었다.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의 컬렉션에서는 프린트와 패턴의 강조가 돋보이는 전원적(반도시풍)인 의상들이 표현되었는데, 장식적인 랩 드레스(wrap dress)와 사롱 스커트(sarong skirt) 등의 풍부한 직물을 이용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민속의상을 모티브로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sarong'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지역, 태평양 제도 등지에서 허리에 둘러 킷트 혹은 스커트 처럼 착용하는 튜브형의 민속 복식이다. 또한 바틱(batik) 혹은 이카트(ikat) 염색법을 특징으로 하며 대부분 동식물 문양의 자연스런 프린트를 표현한다. 레드와 골드 동양 실크직물로 드레이핑된 디자인 그리고 목에 칼라가 없는 브로케이드 코트, 밑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토속적인 팬츠, 헐렁한 셔츠드레스와 허리선이 내려간 로우



<그림 25> 존 갈리아노, 장 폴 고티에, 로베르토 카발리 2010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10, p.79)



<그림 26> 존 갈리아노 2010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27> 버베리프로섬, 디올, 존 갈리아노, 랄프 로렌 2010 F/W 컬렉션  
(출처: 'Vogue USA', 2010)



<그림 28> 드리스 반 노튼  
2010 S/S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그림 29> 드리스 반 노튼  
2008 F/W 컬렉션  
(출처: <http://style.com>)

웨이스트 드레스(low waisted dress)가 열대지방의 자연친화적 민속성을 표방하고 있다<그림 28>. 또한 드리스 반 노튼의 2008 S/S시즌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단순한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한 절제미(austerity chic)와 함께 이에 상반되는 생동감과 다양한 표면감 및 프린팅 기법을 강조한 실크와 시폰을 소재로 전개되었다<그림 29>. 예술적인 민속풍의 직물과 여유롭고 편안한 형태감을 특징으로 하며 길고 간결한 유선형의 실루엣은 모던한 에스닉풍 형성하는데 적합하게 디자인되었다. 특히 중국 민속 의상과 남아메리카 페루의 전통 직조기법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버사이즈 재킷과 짧은 바지로 구성된 파자마 스타일 슈트(pajama-style suits), 플리즈 스커트로 된 드롭 웨이스트 드레스(drop-waist dress), 시폰 드레스로 이루어진 레이어링 효과는 다국적 민속성의 흥미로운 유희적, 창의적 효과를 표출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전지구화 논리 안에서 표현된 패션 트렌드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의미구조와 가치에 이론적 정당성을 설정하는 것에 일차적인 의의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전지구화 현상에 관한 복잡성과 패션 트렌드의 역학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서 전지구화 과정에 담긴 모순적 경향성들이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고찰과 정체성의 재현 방식으로서 패션 트렌드를 해석하였다. 초역사주의는 기술, 구체적으로 탈산업 질서로의 이행에 따른 전지구화의 논리에 기반하여 전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서구사회의 정체성의 측면에서 첫 번째로 민족 정체성의 정착된 지형들이 경합하면서 차이, 타자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압력에 대해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이것은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서구 민족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 민족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낳게 되고, 서구의 문화적 중심성을 개방하게 만들었다. 이는 정체성을 다원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새로운 동일화의 위치들을 낳고, 정체성들이 더 위치에 충실하고 더 정치적이며 여러 개의 보다 다양한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패션트렌드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인한 기호와 스타일들의 단순한 차용에 의해 개인화된 룩으로 표현되며 다원화된 문화적 교환과 초국적(招國的) 기호들을 유희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타문화에 개방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상호 개방적 스타일에 대한 부분적 요소들을 차용하는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지구화 현상에 의한 수용적 입장은 패션 트렌드에 있어서 특수성을 통한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인과적 영향력 아래 작용하고 있다. 이는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21세기적 문화적 전망에 기인하며 패션의 미의식을 확장시키는 진화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지구화 현상의 변증법적 양상에 의한 초국가적 명제와 부합되는 정체성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패션트렌드에 적용되는 변증법적 전개의 제1단계인 테제(these)로서의 서구 보편성(正)은 서구 전통주의로 제기되고 제2단계인 안티테제



(antithese) 곧 정립이 내적 모순으로 낳은 대립명제(對立命題)인 근본주의적 비서구복식인 특수성(反)과 교차, 재접합되어 이들이 각각 병렬 구조로서 존재한 단계로부터 전지구화 현상의 진화에 따른 양자간의 통합이 전개되면서 진테제(synthese)로서 총합(總合) 구조를 형성하는 변증법적 전개의 제3단계가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구체화된다. 총합에 해당하는 현시점의 초역사주의 및 혼합주의의 수용적 서구 패션트렌드는 전환과 확장 및 심화의 양상이 불연속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적 매개에 따른 운동성으로서 나타난다. 이 같은 전지구화 현상의 변증법적 연구의 방법론을 수용의 시각에서 조명한 2000년대 패션 트렌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적 관점으로서 초역사주의는 차용성과 유희적 교환성으로서 나타나며 패션의 초역사성은 전지구화에 대한 수용적 관점을 지향하며, 동시에 혼합주의에서 보이는 일반적 에스닉 웨어에 비해 더욱 순화되고 온건한 혹은 세련된 기교의 적용으로서 전자보다 한층 광범위한 영역과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이는 내면적 상징이나 그 문화적 함축성을 배제한 채, 다양한 지역성에 기인한 기호적 이미지와 스타일들의 단순한 차용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 조합을 형성한다. 즉,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서로 독립된 이국적 디자인 요소들을 참조하며 결과적으로 기본적 아이템들에 흥미로운 변화와 개성을 부여하고 긴장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래 문화의 정통성을 채택하지 않고 자유로운 문화적 혼합과 이국적 기호들을 유희적으로 병치, 조합하여 유머와 의외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단순한 유희적 교환의 단계를 지향하며 특수한 실제적 암시성이나 함의 혹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는 태도로서 전지구화에 대한 관용과 개방성을 나타낸다. 전지구적 이해관계에 직면하여 논쟁적인 쟁점들이 출현하면서 초역사주의는 인종과 문화의 도가니를 상징하는 사회적 교환의 체제를 표방하며 현대패션의 비

전형적 콜라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같은 미의식은 한 개의 문화적 동일성을 표현하는 대신 이질적인 문화경험의 표현과 개작되었거나 과도기적 문화 정체감들 간의 협상을 창의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패션 트렌드에서 역사성과 모던한 현대성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고유한 제3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각적 재현으로 형상화되었다. 둘째, 또 다른 수용적 관점으로서 혼합주의는 지역성과 문화접변성으로 표현되며 이는 외부의 이국적 영향력을 수용한 민속적 이미지는 이상적으로 무형적 민족의 잃어버린 유토피아와 가치를 추구하며 문명과 떨어진 미개지역의 문화를 통해 투영된다. 이들의 비서구적인 문화의 독창성에 기인한 에스닉 웨어는 내재적으로 현대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참고문헌

- 1) 'globalization'의 번역 용어 문제는 그 간의 용어 사용법을 볼 때 '세계화', '국제화', '전지구화' 등으로 혼용 혹은 오용되고 있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 'Modernity and its future' 모더니티의 미래)에 따르면, 서구 근대를 특징짓는 문화 정체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의 부상과 쇠퇴는 각각 '낡은 전지구화'와 '새로운 전지구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낡은 전지구화'는 서구 열강의 민족주의와 함께 성장하였는 바, 서구 민족주의는 '위대한 자민족과 열등한 기타 민족'이라는 재현체계를 통하여 자민족과 타민족을 구분하면서 스스로에게 낡고, 호전적이고 합병된, 동종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범위와 강도의 '새로운 전지구화'가 추진되면서, 한 국가의 영토를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초국적 자본과 문화, 산물들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 새로운 전지구화 개념은 이전의 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타민족에 대한 우월성에 기초를 두거나 타민족에 대한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낡은 전지구화 개념과 연관된 '국제화' 그리고 기존의 여러 의미들이 중첩된 의미과잉의 기호인 '세계화' 번역에 대해 20세기 후반 이후 새로운 전지구화 개념에 기반한 국내 사회학 분야의 번역을 참조하여 '전지구화' 용어를 채택하였다.
- 2) Giddens, A. (1991).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후기 현대의

- 자아와 사회, 권기돈 옮김 (1997). 서울: 새물결, p.21.
- 3) Robertson, R. (1991). 'Society theory, cultural relativity and the problem of globality', New York: in King, A, pp.125-130.
  - 4) Hannertz, U. (1991). 'Scenarios for peripheral cultures', New York: in King, A. p.29.
  - 5) Rosenau, J. (1990).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Brighton, Harvester Wheatsheaf. p.5.
  - 6) Perlmutter, H.V. (1991). 'On the Rocky Road to the First Global Civilization', Human Relations, 44(9), pp.897-1010.
  - 7) McGrew, A. (1992). Global politics in transition, in McGrew, A. and Lewis, P. (Eds), p.132.
  - 8) Rosenau, J. 앞의 책, p.92.
  - 9) Modelski, G. (1972). Principles of world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p.37.
  - 10) Giddens, A. (1990). 포스트모더니티, 이윤희, 이현희 옮김 (1996). 서울: 민영사, p.14.
  - 11) 다중심 세계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된다. 초국적 그린피스, 초국적 은행들, 가톨릭 교회, 국제 사회 학회, 적십자, 옥스퍼드 기근 구호 위원회(Oxfam), 카포드(Cafod), IBM, 포드, 국제 노동 조합, 사회 운동, 초국적 문제, 원조, 소수 민족 문제, 통화 위기 등
  - 12) Modelski, G. 앞의 책, p.122.
  - 13) "A new shape; 'tunic timeline'.... It's not as if tunics have sprung from nowhere, it's tributary is the popularity of Indian 'kurta', a look that began with the boho trend. Though valuable historical pieces, they possess the supple energy, the relevance to our daily lives.... We'll look back on the tunics in this collection as part of a general change of direction toward a strong and chic new way of dressing." from Vogue USA August, 2006 issue pp.142-143.
  - 14) "Tracing a trend"; How to know when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Look for the woman who's slipped a pair of trousers under a frock, For spring 2002 (when we are all too aware that the times hey have a-changed), she's back rejecting the soulless bourgeois separates of the West in favor of shalwar kameezes, djellaba ensembles, and other Eastern basics." from Vogue USA March, 2002 p.364.
  - 15) "Boho Power: The 'ethnic look' isn't so earthy these days. Billowing peasant tops and rattling bangles have been streamlined for the big-city sophisticate." Vogue USA, march, 2005 issue p.47.

# **Dialectical Interpretation of the Affect of Globalization on Twenty-first Century Fashion Trends - Super-historicism and Syncretics -**

**Lee, Eun Ji**

Ph.D. in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spread of the zeitgeist of the 21st century is the process of change and strength which can be summarized as globalization, Creation and loss of bonding, and points and crossroads of various conflicts between identities concerning individual identity acted as a visual symbol and came to set the direction for changes found in fashion trends. Globalization allowed the existence of different aspects that compress time and space which changed the form of modern society. These changes fragment the cultural identities found under the name of class, gender, sex, species, race and ethnicity which forms the identity of each individual. Our individual identity migrates along with the process of change which also affects the sensation of self as an integrated subject. The geographical features attached to national identity started to compete with one another which resulted to showing occlusiveness via the pressures of difference, otherness and cultural variety. The result varied but it was witnessed in all Western national cultures which led to raising the issue of national identity and eventually resulted in opening the heart of Western culture. Therefore, globalization became centralized and allowed closed national cultural identities to compete and dislocate with each another. In fashion trends, various preferences and styles based on different cultures were borrowed and expressed as personalized looks and used diversified cultural trade and super-sovereign symbols in a playful manner. They express openness to other cultures and can be understood as an approach that partially borrows other styles that are known for their openness. The super-historicism of fashion strives to embrace globalization but at the same time applies more refined, moderate and sophisticated skills to general ethnic wear that is shown in syncretism in a wider area and scope.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in universality vs. uniqueness, homogeneity vs. differential, integration vs. fragmentation and syntropic vs. convergence were passed down to mature into the current unique form. History and modern fashion trends are combined to create a unique third identity that is displayed via visual manners.

Key words: globalization, super-historicism, fashion trends, syncretics